

# 패기·투혼 만으로 한계...높은 프로의 벽 실감

## 광주 시페퍼스 V리그 결산

### <상> 두번째 시즌 무엇을 남겼나

광주 시페퍼스 여자프로배구단의 올시즌 목표는 10승이었다. 창단 2년째로 접어들어 올해는 3승에 그쳤던 지난 해보다 발전한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였다. 올시즌 36경기를 치른 최종 성적은 5승 31패(승점 14). 지난 시즌 3승보다 2승을 더 늘렸지만 목표에는 크게 못미쳤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하위인 7위에 머물렀고 6위를 차지한 IBK기업은행(15승 21패-승점 48)과도 한참 격차가 있다. 신생팀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결과로는 V리그에 못미치는 전력이다. 페퍼스는 시즌 내내 프로의 벽을 실감하며 험난한 길을 걸었다. 개막 17연패를 기록해 KGC인삼공사가 2012-2013 V리그에서 기록한 한시즌 최다연패(20연패) 기록을 코앞에 두기도 했다. 김형실 초대 감독이 시즌 도중에 지휘봉을 내려 놓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경수 감독 대행 체제로 팀을 정비한 뒤 연패는 17에서 멈췄다. 결과적으로 페퍼스는 뚜렷한 전력 보강없이 올시즌을 치르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창단 당시 각 구단이 보충선수로 묶은 에이스를 제외하고 특별지원 선수와 신인들로 선수단

이고는 이외 공격진 보강 미흡 오지영도 시즌 중반 넘겨 합류 엷은 선수층에 잇단 부상 악재

목표 10승 밑도는 5승으로 마감 경험 부족에 공격 지표도 최하위 이한비·최가은 등 성장 '기대감'

을 꾸렸다. FA시장에서 증견센터 이고은을 영입했으나 주축 멤버들의 성장이 더뎠다. 시즌 중반 리베로 오지영을 긴급 수혈했으나 역시 국내 공격진 수혈이 이뤄지지 않아 전력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었다. 앞선데 달린 격으로 줄 부상이 이어져 올 시즌 한 차례도 완전체로 뛰지 못했다. 하혜진과 박은서가 부상으로 시즌 아웃됐고 염어령도 부상으로 코트에 서지 못했다. 선수층이 엷은 페퍼스로서는 연패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김형실 감독이 비시즌 동안 일본 전지 훈련을 통해 경험을 쌓고 약점을 보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결실을 보지 못한 이유다. '막내의 패기'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결과로 이어지는 않았다. 최하위로 마감한 페퍼스의 난맥상은 각종 지표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공격 성공률(34.15%, 7위), 서브 에이스(세트평균 0.750, 6위), 블로킹(세트당 1.654개, 7위) 등 공격 부문 지표가 최하위권이다. 리시브 효율(34.33%)이 꼴찌이고 범실(650개)도 최하위권이다. 상대편 공격을 무력화하는 공격적인 서비스를 내지 못했고 공격력도 취약했다. 경험부족으로 경기 흐름을 타지 못하고 진점 승부를 벌여야 하는 20점 이후 승부에는 특히 취약했다. 지난해 11월 6일 KGC인삼공사전에서 먼저 2세트를 따내고도 3세트를 내리내주고 패배했다. 1, 2세트를 먼저 따낸 뒤 3세트를 내주고 맞은 4세트가 결정적인 승부처였는데 23-25로 무릎을 꿇었다. 지난 3월 5일 현대건설전에서는 1세트를 내준 뒤 2, 3세트를 내리 잡아냈으나 4, 5세트에서 각각 15점, 12점을 따내는 등 극심한 기록을 보였다. 이경수 감독대행은 언론 인터뷰에서 "결국 집중력 싸움이다. 20점 넘어가면 불안함이 있다. 그러면서 범실이 나오다 보니 흐름이 바뀌고 있다. 자신감도 있어야 하고, 경험도 쌓여야 한다. 아직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올해 부쩍 성장한 선수들은 다음 시즌 기대를 갖게했다. 아웃사이드 히터 이한비는 킥오픈 성공률(39.1%, 10위), 수비(세트당 5.838개, 10위) 등에서 가파르게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들 블로커 최가은은 속공(38.68%, 7위), 이동공격(34.57%, 7위), 세트당 평균 블로킹(0.537개, 10위) 등 공격 부문에서 이름을 각인했다. 하지만, 공



광주 시페퍼스 선수들이 지난 18일 IBK기업은행과 최종전에서 승리한 뒤 환호하고 있다. <KOVO 제공>

·상위 랭킹 5위권에 포진한 선수가 외국인 선수 니아 리드를 제외하고 세트 이고은, 리베로 오지영 2명만이 이름을 올린 것은 현재 전력을 그대로 보여준다. 광주 배구계의 한 인사는 "페퍼스가 창단 2년째

를 맞아 패기와 투혼으로 코트에 세바람을 불어넣고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새 감독을 맞는 다음 시즌에는 결과를 낼 수 있는 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전남도청 최세빈, 펜싱 월드컵 사브르 단체전 우승

전남도청 최세빈이 활약한 대한민국 펜싱팀이 국제펜싱연맹(FIE) 월드컵대회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대한민국 대표팀(세계 랭킹 2위)이 벨기에 신트니클라스에서 열린 이 대회 사브르 단체전 결승에서 이탈리아를 꺾고 우승했다. 최세빈, 전은혜(인천중구청)·전이한아(한국체육대학)·윤소연(대전시청)으로 이뤄진 대표팀은 결승에서 이탈리아(세계 랭킹 4위)를 45-42로 제압했다. 최세빈은 타슈켄트 월드컵 동메달, 아테네 월드컵 은메달 획득에 이어 이번엔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4연속 국제대회에 입상했다. 한국팀은 준결승전에서는 '난적' 헝가리(세계 3위)를 45-44로 극적으로 따돌렸다. 8강전에서는 불가리아(세계 9위)를 45-39로 눌렀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지난 아테네 월드컵에 이어 두차례 불가리아를 꺾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주전급 선수들의 부상으로 20대 초중반 선수들이 출전해 이룬 성과다. 대한민국 펜싱의 선수층이 두텁다는 것을 증명한 대회로 평가받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우승컵과 금메달을 획득한 여자 사브르 대표팀. 전은혜(왼쪽부터)·이한아·윤소연·최세빈. <전남도 제공>



무안군청 검도팀이 전국실업검도대회 단체전 우승을 기념하고 있다.

# 무안군청, 전국실업검도 단체전 제패

## 탐솔라는 여자 검도 준우승

무안군청 검도팀이 제27회 춘계 전국실업검도대회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무안군청 검도팀은 최근 충남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이 대회 단체전 결승에서 구미시청을 3-1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무안군청은 2020년 추계전국실업검도대회 우승 이후 3년 만에 1위에 올랐다. 양동관은 3단부 개인전 동메달을 따냈다. 그는

준결승에서 활서형(인제군청)에 패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한 여자실업 검도팀인 탐솔라는 단체전 결승에서 부산시체육회에 0-2로 패해 준우승을 거뒀다. 탐솔라는 최근 동계전국실업검도대회 단체전에서도 준우승을 거둔 바 있다. 광주 북구청 서민영은 남자 5단부 개인전에서 3위에 올랐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전국 남·여 25개 팀 170여명 선수가 참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PGA '빅3' 이번엔 매치플레이 대결

## 김주형, 세플러와 조별리그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를 뜨겁게 달구는 '빅3'의 경쟁이 이번에는 매치플레이 대회에서 펼쳐진다. 세계랭킹 1~3위 스코티 셰플러(미국), 온 램(스페인),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는 오는 23일(한국시간)부터 닷새 동안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오스틴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리는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델 테크놀로지스 매치플레이(총상금 2000만 달러)에 출전한다.

세계랭킹 순으로 64명만 출전하는 이 대회는 PGA투어에서 유일하게 매치 플레이 방식으로 우승자를 가린다. 내년부터 폐지되기에 이번 대회 우승자는 마지막 우승자라는 명예를 안게 된다. 올해 들어 대회 때마다 세계랭킹 1위를 놓고 경쟁했고, 대회 결과에 따라 세계랭킹 1위를 주고받은 셰플러, 램, 매길로이는 이번에도 세계랭킹 1위를 다툰다. 대진표에 따르면 세계 2위 램과 3위 매길로이는 준결승에서야 만날 수 있고, 세계랭킹 1위 셰플러는

램이나 매길로이와는 결승에서야 맞붙을 수 있다. 4명이 한 번씩 대결하는 조별리그 3경기부터는 이번이 적지 않게 펼쳐진다. 김주형(21)은 이번 대회 '최대 이변'에 도전장을 냈다. 김주형은 세플러와 조별리그를 벌인다. 알렉스 노렌(스웨덴), 데이비스 라일리(미국)와 먼저 경기를 치르고 조별리그 마지막 날 셰플러와 대결한다. 김주형이 세플러를 제치고 16강에 오른다면 대회 최대 이변으로 손꼽힐 수 있다. 토미 플리트우드(잉글랜드), J.T. 포스턴(미국), 매버릭 맥닐리(미국)와 조별리그를 치르는 임성재(25)는 16강 진출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탐솔라 여자검도팀.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스즈메의 문단속, 사침! 신들의 분노
- 2관 스즈메의 문단속
- 3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 모나리자와 블러드 문, 플레인
- 4관 웅남이
- 5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 팔로우드
- 6관 스즈메의 문단속, 꼬마돼지 베이브의 바다 대모험
- 9관 소울메이트
- 7관 세네카를 모나리자와 블러드 문, 퓌코페이스
- 8관 세네카를 더 퍼스트 슬램덩크, 소울메이트, 파벨만스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3-03-01(수) ~ 2023-03-31(금)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광주시립발레단 기획공연 발레상품콘서트 II <단원안무전 Ballet Curation>**

일시 : 2023-03-31(금) 19:30

2023-04-01(토) 15:00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415-5502 / 062-522-8716